

장수군 재난 예·경보 확대구축

노후 문자전광판 6개·재난영상 CCTV 8개소·음성시스템 6개 추가

장수군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문자전광판 6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재난영상 CCTV 8개소, 자동음성시스템 6개를 추가 구축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집중호우와

강우량을 측정해 주민 주의 및 대피 필요성을 파악해 자동 방송하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군에서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군은 예·경보 시스템 총 6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벌여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해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 여름에도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돌발호우 등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시스템을 확충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도 자연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반딧불시니어클럽 주관 1300여명 참석

무주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활동·직무교육이 15일 무주읍 예제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관장 황인태)이 주관 이날 행사는 일자리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딧불시니어클럽 박기주 지회장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활동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올해도 일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어르신들을 만나 "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이 증진해보시길 바란다"라고 격

려했다.

무주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활동·직무교육은 지난 9일 직상면을 시작으로 부남면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에서도 개최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등을 통해 1,605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으며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을 통해서도 아이돌봄과 건강 지키미 등 1420개의 일자리가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관내 교원 대상 환경교육 진행

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견학 등

올 초 주민대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견학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던 무주군이 15일에는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전 교육은 관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후에는 관내 학교 담담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도착한 교원들은 쓰레기 재활용과정,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비롯한 침출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최근 해양 동물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에 관한 동영상도 시청했다.

이후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는 매립시설과 광역전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들은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과를 비롯해 동아리 활동 내용과도 연계 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모으고 처리하는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굉장히 유익했다"라며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고 오늘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환경 이야기를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견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무주교육지원청과 협조해 8월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난안전교육 실시

무주군은 15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19년 무주군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재난 없는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주군청 본청을 비롯한 읍·면 공무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연단에 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박성식 복구지원과장은 "자연 및 사회재난의 복구지원 체계"에 관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재난에 대한 기본지식과 체계를 비롯한 △재난의 사례와 유형,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 △국가복구 지원 체계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열대성 기후 양상이 점점 짙어지면서 국지성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의 대비가 보다 체계화되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60명은 장수의 문화재와 지리를 탐방하는 장수알기 프로젝트 연수에 참가했다.

'장수' 를 새롭게 인식시키다

장수알기프로젝트 교직원 연수

장수교육지원청은 장수군청과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장수의 문화재와 지리를 탐방하는 장수알기 프로젝트 연수를 지난 5~6일, 12~13일 두 번에 걸쳐 1박 2일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교과통합학습연구회 회장인 장현근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였으며, 산악지역에서 그 동안 다소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장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때 강력한 철거문화로 고구려, 백제, 신라와 자웅을 겨루었던 강력한 철의 왕국인 장수가 아예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야심차게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연수 중 방문지로는 200여기가 넘는 '장수가야 고분군',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 '뜬보름', 백제와

신라 및 후백제의 치열한 격전지인 '함미성'과 '장수가야 대적골 제철유적지', '영취산 봉수대',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중요 인물인 '주논개'와 한일의병장인 '전해산, 문태서, 박춘실', 3.1운동의 핵심 인물인 '백용성 조사', 한글을 지키는데 헌신한 '정인승 박사', 을 다루었다.

정동일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장수가 변방이 아닌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알리고, 다시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장수군청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도시재생대학 개강

진안군은 15일 낙후된 도심과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진안군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

진안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시재생 의제 발굴,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과 도심 거주 주민, 시장 상인회 회원, 자영업자, 청년창업가, 예술가, 음악가,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 이해와 관련 사례 소개에 대한 전문가 강의, 주민주도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탐방 지도교수와 함께 도시재생 계획 수립, 최종 발표 및 수료식 등 총 8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며 "진안군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주도로 진안군의 주거복지, 도시 활력, 일자리,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질환 확대

장수군보건의료원은 15일 조기진통과 중증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등 11종 고위험 임산부에 한해 지원했던 의료비를 고혈압, 대태임신, 당뇨병 등을 포함한 1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확대된 지원 질환은 고혈압과 대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교태,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외 부속기질환을 포함한 19종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가구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이며, 지원금액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임산부는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약국(350-276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먹거리 사전품평회 개최

진안군은 최근 군청 구내식당에서 2019 진안홍삼축제 홍삼음식 부스에서 판매될 음식에 대한 사전 시식 품평회를 열었다.

이날 품평회는 진안홍삼을 활용해 2019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먹거리부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4개 업체가 참여한 품평회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홍삼튀김, 홍삼밥상, 홍삼한방보쌈, 홍삼두부묵무침, 홍삼김밥, 홍삼부꾸미, 홍삼호떡, 홍삼꿀빵이무침 등 20여 종류의 먹거리를 선보였다.

이날 시식품평회 평가위원은 음식판

련 전문가와 홍삼축제추진위원회, 홍삼연구소,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전북인삼농협, NH진안군지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총 50여 명으로 20~60대까지 연령대와 성별을 고르게 구성했다.

이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면서 가격은 적정인지, 맛은 좋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지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했다.

특히 이번 품평회에서 홍삼튀김은 수삼의 크기를 키우고 홍삼제조의 방식을 '6시간 건조', '11시간 건조' 두 가지로 연구를 진행하여 식감과 향, 맛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축제 때 선보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